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으로 보내시고, 우리 삶을 거두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사는 동안, 이곳 승실에서 일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직업으로, 교원이 된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이 세상사는 것은 아닌지 먼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살아가는 동안 겸손히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우리에게 아직 육체의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또한 우리 승실대학이 품고 있는 소망에 응답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을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정에 따라 간담회를 진행하는 동안, 비록 서로의 생각은 다를지라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흔적만이 남는 귀한 시간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멘-

기도시간 :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공대간담회 (오후 3시)